



남부고시온라인 나래국어 이유진 2017 국외직 9급 국어

해설 강의는 남부고시온라인 무료특강으로!

문 1. 다음 중 합성어의 수는?¹)

나무꾼, 뒤엎다, 병마개, 엿보다, 작은아버지, 질푸르다, 헛되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한 것은?²)

“이 바지는 길이가 너무 짧네요.”

- ① [째네요] ② [잘브네요] ③ [째네요]
④ [잘레요] ⑤ [잘네요]

문 3. 다음 중세국어 짝의 의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³)

- ① ㄱ 도타(좋다) ㄴ 디다(짧어지다)
 ㄷ 조타(깨끗하다) ㄹ 지다(떨어지다)
③ ㄱ 녀름(여름) ㄴ 소(늪)
 ㄷ 여름(열매) ㄹ 쇼(소)
⑤ ㄱ 물(무리) ㄴ 물(물)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⁴)

이른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라는 비대칭적인 양분 논리 속에서 후자에 속한 유목기마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소외당해 온 것은 분명 문명사 연구의 한 오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문명을 응징하기 위해 파견된 신의 채찍으로 역사의 그물을 켜고 인류 문명의 한 수레바퀴를 떠밀어 온 위대한 민족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명교류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문명사적 과제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7천 년 전 신생대 제4기 충적세에 들어와서 북방 유라시아에 동서로 긴 지리대가 네 개 형성되었다. 즉 북극해에 면한 동토대와 그 이남의 침엽수림대, 북위 50도 부근의 초원 지대, 그리고 북위 40도 부근의 사막 지대이다.

그중 초원 지대와 사막 지대는 대규모의 관개수리가 요구되므로 자연 농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생계의 유일한 수단은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다. 그런데 축산은 목초가 필요하고, 인간이나 가축의 생명 유지는 수원(水源)이 필수이다. 게다가 계절의 변화는 인간이나 가축의 이동을 유발한다. 그 결과 수원이나 목초를 따라,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이동하고 순회하게 된다. 이렇게 가축을 사양하면서 수초를 찾아가재와 함께 주거지나 활동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통칭 유목민이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유목은 광역적 이동 목적의 주요 행위이며, 성원 대다수가 주기적 목축 이동에 참여하는 특유한 형태의 식량 생산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 ① 유목기마민족은 문명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② 초원 지대에서 자연 농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농업용수의 부족 때문이다.
③ 사막 지대에서 인간이나 가축이 이동해야 하는 문제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은 무관하다.
④ 가축을 기르면서 물과 풀을 찾아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 부른다.
⑤ 유목인 집단에서는 구성원 대다수가 주기적인 이동에 참여한다.

문 5. 다음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한 부분이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⁵)

이 때, 향단이는 저의 아기씨 신세를 생각하여, 크게 우든 못하고 체읍(涕泣)하여 우는 말이,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도덕 높은 우리 아기씨를 어찌하여 살리시려오? 어찌꺼나요, 어찌꺼나요?”
실정으로 우는 양을 어사또 보시더니, 기가 막혀,
“여봐라, 향단아,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너의 아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쏘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춘향모 들더니,
“에고, 양반이라고 오기(傲氣)는 있어서…….”
“대체 자네가 왜 저 모양인가?”
향단이 하는 말이,
“우리 큰아씨 하는 말을 조금도 껌념(掛念) 마옵소서. 나 많아 노망한 중에 이 일을 당해 놓으니, 화집에 하는 말을 일본(一分)인들 노하리까? 더운 진지 잡수시오.”
어사또 밥상 받고 생각하니, ()하여 마음이 울적(鬱寂), 오장(五臟)이 월령월령, 석반(夕飯)이 맛이 없어,
“향단아, 상 물러라.”
담뱃대 툇툇 털며,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지.”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향단이 여쭙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 치거든 가사이다.”

- ① 분기탱천(憤氣撐天) ② 동분서주(東奔西走)
③ 허장성세(虛張聲勢) ④ 은감불원(殷鑑不遠)
⑤ 노심초사(勞心焦思)

문 6. 다음 중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⁶⁾

- ① 손이 싸서 일찍 끝냈구나.
- ② 그렇게 변죽을 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
- ③ 그는 반죽이 좋아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않는다.
- ④ 그는 살이 찌러는지 요즘은 입이 달아 무엇이든 잘 먹는다.
- ⑤ 그녀는 질에 간 색시같이 자발없이 나선다.

문 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법이 옳은 것은?⁷⁾

어릴 때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시골 완행버스라는 게 장날에는 얼마나 ㉠와짜하고 붐비는지요. 그 ㉡복새통을 뚫고 빈자리를 확보해서는 ㉢꽤죄죄한 보따리나 가방 하나를 꼭 던져 놓고 저만치서 ㉣쭈뼛거리는 저를 끝끝내 앉히려던 어머니.

삶의 끝자락에 누운 뒤 처음으로 편한 잠 주무시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병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연히 콧등이 시큰해져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다보니, 아, 무슨 꿈을 꾸시는지 어머니가 가뭇가뭇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다가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발을 만져 드렸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⁸⁾

- ① 아무런 증세가 없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 ② 키가 몰라보게 꼴구나.
- ③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 ④ 내일 아침이 밝으면 떠나겠다.
- ⑤ 사람은 늙거나 병들면 죽는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⁹⁾

풀은 줄기가 나무질인 아닌 초질(草質)로 이루어진 식물을 일컫는다. 풀의 땅 윗부분은 1년 또는 2년 안에 죽고, 줄기의 관다발에 있는 형성층이 1년이면 그 기능이 정지되며, 처음에 생긴 물관부 밖에는 비대 성장하지 않는다.

땅 윗부분뿐만 아니라 땅 아랫부분도 1년 만에 죽는 것을 한해살이풀(나팔꽃, 옥수수)이라고 한다. 이는 일생에 한 번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종자에서 발아한 풀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서 가을에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두해살이풀(시금치)이라고 한다. 이 중 해를 넘겨도 12개월 내에 시드는 식물을 한해살이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 해 중에 시드는 것을 ‘하생(夏生) 년생 초본’이라 하여 해를 넘기는 식물과 구별한다. 이에 비해 땅 아랫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 생존하면서 한살이 동안 몇 차례 이상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해살이풀(은방울꽃, 자리공) 또는 숙근초(宿根草)라고 하며,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풀을 상록 초본이라고 한다.

한해살이풀과 두해살이풀은 뿌리가 수염 모양으로 난 것이 많으나 여러해살이풀은 땅 아랫부분에 뿌리, 줄기, 잎이 변형된 덩이뿌리, 덩이줄기, 뿌리줄기, 비늘줄기가 있으며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많다. 야자나무과나 대나무 등은 본질적으로 풀에 속하는데 지상부가 몇 년 이상 살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지만, 비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특수한 풀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학적으로 초본과 목본이 같은 분류군에 속한 경우도 있다(국화과, 콩과).

- ① 풀과 나무는 줄기가 초질인지 나무질인지로 구분한다.
- ② 시금치는 상록 초본으로 볼 수 없다.
- ③ 상록 초본은 한살이 동안 여러 차례 꽃과 열매를 맺는다.
- ④ 덩이뿌리, 뿌리줄기, 비늘줄기를 가지는 한해살이풀도 있다.
- ⑤ 대나무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풀에 속한다.

문 1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외래어를 다듬은 말로 옳지 않은 것은?¹⁰⁾

- ① 최근 하루에 한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가 인기를 끌고 있다. → 공동할인구매
- ②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늘면 사업자의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은 전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암거래 소비자
- ③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이고 있다. → 끝장 승부
- ④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 백지 상태
- 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무선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근거리무선망

문 11.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¹¹⁾

- ① 철수의 장점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떤 일든 최선을 다한다.
- ② 선생님은 학생들의 애환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 ③ 지금으로써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 ④ 김 씨는 “사람들이 매우 흥분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 ⑤ 가세가 기운 뒤로는 그토록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점차 야박해져 갔다.

문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단어의 수는?12)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 이어서 길어지는
또 하나의 기차가 되어 / 먼 길을 가요

- ① 7개 ② 8개 ③ 10개 ④ 12개 ⑤ 14개

문 13. 다음은 가사 작품 <상춘곡>의 첫 부분이다. 내용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곳은?13)

홍진(紅塵)에 못친 분내 이 생애(生涯) 엇더하고, 냇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 천지간(天地
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진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
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
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다. ㉢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
陽裏)에 뛰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
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
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
(嬌態)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14.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14)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현대사회의 발달
에 따른 예술 자체의 변모와도 관련된 것이다. ()
예술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비평가를 포함한 청중 또는 관중의 존
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예술 공중은 예술작품을 수동적
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예술
창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술이 매체를 필요로 한다
는 사실도 예술의 사회성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이다. 하
나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예술의 종
류에 따라 사회적으로 또는 관행에 의해 인정된 재료나 절
차에 따라야 한다. 예술의 매체는 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제한을 가한
다. 예술은 습관, 경험, 기술의 복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통해서 식별된다. 한 사회가 예술이라는 개념을 소
유하기 전에, 또는 예술적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수립되기
전에 예술작품의 생산이나 예술적 감상은 존재할 수 없다.

- ① 개인적이고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술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②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③ 예술은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며 예술의 개념은 시대
에 따라 변천된다.
④ 예술의 연구는 인문주의적 전통 하에서 예술철학이라
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⑤ 예술사회학은 예술과 사회학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
냐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조래하였다.

문 15.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15)

- ① 맛문하다: 맛깔스럽고 정갈하다.
② 손방: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③ 곧추: 굽히거나 구부리지 아니하고 곧게.
④ 온새미로: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로.
⑤ 모꼬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문 1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16)

- ㄱ. 최근에는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창의성, 예술성 등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
엔 전세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왼쪽은 ‘그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는가 하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채수가 없다’는 속
설도 있었다. 영어로 왼손잡이를 뜻하는 ‘left-handed’에
는 ‘서투른, 신분에 맞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내
포돼 있으며, 프랑스어로 왼쪽을 의미하는 ‘gauche’에도
‘비뚤어진, 어색한’이라는 뜻이, 독일어 ‘link’ 역시 ‘의심
스러운, 열등한’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단어 자체의 부
정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끼쳐 왼손
을 쓰는 아이는 때려가면서까지 고치게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슬로건은 독특하다. 전세계의 왼
손잡이들에게 모든 것을 왼손으로 다루기 위해서 ‘개인공
간을 왼손잡이만의 공간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오른손잡
이인 친구나 동료, 가족들 속에서 왼손잡이인 자신을 찾
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불편함 속에 고통 받아 왔다
는 의미이다.
ㄷ.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왼손잡
이는 머리가 좋다’와 같은 속설로 꾸준히 변해 왔지만,
아직 왼손잡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다. 가
위, 카메라 셔터, 컴퓨터 마우스, 자동차 기어, 지하철 개
찰구 등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 대부분이 여전히 오른
손잡이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ㄹ. 왼손잡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아는가? 매년 8월 13일
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4년째를 맞
은, 제법 오래된 기념일인 셈이다. 왼손잡이의 날은 1992
년부터 세계 왼손잡이들이 의기투합해 왼손잡이들의 불편
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ㄷ - ㄱ - ㄴ - ㄹ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ㄴ - ㄱ - ㄷ

문 1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¹⁷⁾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여 가능한 한 많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울여 온 노력은 지구촌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지상과제 중 하나이다. (㉠)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시대에 어떻게 먹을거리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 21세기는 먹을거리에 관한 한 '풍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풍요의 시대가 '약속된 하느님의 뜻'인 것 같지 않다. 일부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콩이나 돼지고기를 먹은 우리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 | | | |
|-------|-----|------|
| ㉠ | ㉡ | ㉢ |
| ① 그래서 | 그러나 | 그렇지만 |
| ② 그런데 | 그리고 | 심지어 |
| ③ 그러나 | 심지어 | 그리고 |
| ④ 심지어 | 그래서 | 하지만 |
| ⑤ 하지만 | 그래서 | 그러나 |

문 1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국어의 어법상 옳은 것은?¹⁸⁾

- ① 우리 할머니는 항상 옛스러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다니신다.
- ②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연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구정만 됐다고 하더라.
- ③ 학교까지 열만큼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 ④ 바이올린 신동의 연주가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콘서트홀 안을 가득 메웠다.
- ⑤ 여기가 우리의 홈구장이라는 잇점을 감안하면 현재 랭킹에서 좀 밀리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듯하다.

문 1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¹⁹⁾

저는 (㉠)을 좋아합니다. (㉡)도 좋아하지만 (㉠)을 더 좋아합니다. (㉢)이 포근하고 은근한 누님 같다면 (㉠)은 다정한 형님 같습니다. (㉣)빛이 인자한 어머니의 빛이라면 (㉠)빛은 웬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됩니다. (㉡)빛은 마냥 따스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 (㉠)빛은 따스하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 차가움이 들뜨기 쉬운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하고, 때로는 사물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인의 빛이 있다면 (㉢)빛보다는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밤길을 걸어가다가 (㉣)을 바라볼 때보다 (㉠)을 바라볼 때 더 살아 있다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 (㉣)적이려면 (㉠)은 (㉡)적인 것이 아닐까요? (㉣)이 슬픔이라면 (㉠)은 그 슬픔을 껴안고 일어서는 기쁨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은 매일 변하지만 (㉠)은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 | | | | |
|-----|---|----|----|
| ㉠ | ㉡ | ㉢ | ㉣ |
| ① 달 | 별 | 논리 | 감성 |
| ② 별 | 달 | 이성 | 감성 |
| ③ 별 | 달 | 감성 | 이성 |
| ④ 달 | 별 | 감성 | 이성 |
| ⑤ 달 | 별 | 감정 | 논리 |

문 20. 다음은 고전소설 <구운몽>의 한 부분이다. 문맥상 밑줄 친 단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²⁰⁾

대사(大師)의 문하(門下)에 제제(弟子) 수백 인인데, 계행(戒行)이 높고神通(神通)을 얻은 재(者) 삼십여 인이라. 기중에 ㉠유로 젊은 제자의 이름은 성진(性眞)이니, 얼굴이 백설 같고, 정신이 추수(秋水) 같고, 나이 이십 세에 삼장경문(三藏經文)을 통송지 못할 것이 없고, 총명(聰明)과 지혜(知慧), 중중(衆中)에 초출(超出)하니, 대세(大師) 크게 중히 여겨 ㉡상해 전도(傳道)할 그릇으로 기대하더라.

대세 매양 제자로 더불어 큰 법(法)을 강론(講論)할 제, 동정 용왕(洞庭龍王)이 백의노인(白衣老人)이 되어 법석(法席)에 참여하여 경을 듣더니, 대세 일일은 제자더러 이르되,

“동정용군(洞庭龍君)이 여러 번 경을 들었으되 일찍 답례를 못 하였으니, 내 늙고 병들어 산문을 나지 않은 지 십여년이라. 내 몸은 ㉢산문 밖에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너희 중 누 ㉣수부에 들어가 나를 대신하여 용군에게 회사(回謝)할꼬?”

성진이 가기를 청하거늘, 대세(大師) 기뻐하여 허락하니, 성진이 가사(袈裟)를 정제(整齊)히 하고 ㉤육환장을 이끌고 동정으로 향하여 가니라.

- ① ㉠ 유로 - 특별히
- ② ㉡ 상해 - 항상
- ③ ㉢ 산문 - 절간
- ④ ㉣ 수부 - 용궁
- ⑤ ㉤ 육환장 - 여섯 겹의 옷

1) ②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병마개: 병사 '병'과 병사 '마개'의 결합인 합성어이다.

작은아버지: 접두사 '작은-'이 2015년에 삭제되어 형용사 '작다'의 활용형인 '작은'과 병사 '아버지'가 결합된 '작은아버지'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질푸르다: '질다'와 '푸르다'가 연결 어미 '-고' 없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해설]

나무꾼: 땀나무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나무꾼'은 '씨름꾼, 소리꾼'처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뒤었다: '뒤집어었다'와 동의어인 '뒤었다'는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뒤-'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옛보다: '물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옛-'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헛되다: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의 뜻을 갖는 형용사 '헛되다'는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2) ④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단순화된 자음 'ㄹ'에 의해 뒤에 오는 어미 '-네'의 자음 'ㄴ'은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ㄹ'로 동화되어 [레]로 발음된다. 따라서 '잘네요'는 [잘레요]와 같이 발음한다.

3) ② [이론 문법 - 고전문법 - 어휘의 변천]

디다(지다): 뜻 디고 새 님 나니 綠々陰음이 싹틔는디, - 정철, <사미인곡>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그늘이 깔렸는데.)

지다(떨어지다):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 정극인, <상춘곡>

[오답해설]

① 도타(좋다):

내해 도타하고 남 슬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義) 안이여든 좇지말니

우리는 천성(天性)을 직히여 삼진대로 하리라.

- 변계량(卞季良)

조타(깨끗하다):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를 즈로 혼다.

바람 소리 몯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틀쨌인가 하노라.

- 윤선도, <오우가>

③ 너름(여름):

江湖(강호)에 너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었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난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날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삿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여름(열매):

불휘 기쁜 남근 브르메 아니 뵈실

꽃 도쿄 여름 하나니

- <용비어천가>

④ 소(료): 율하 율하 / 아련 비울하

여울란 어디 두고 / 소해 자라온다

- <만전춘별사>

쇼(소): 쇼 업슨 궁가(窮家)에 해염 만하 왓삽노라.

- 박인로, <누항사>

⑤ 물(무리): 제비는 물을 주고 기력이 물이져서

- <유산가>

물(물): 물 ㅁ튼 열굴이 편직 실 몇 날인고.

- 정철, <속미인곡>

4) ③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인간이나 가축은 수원이나 목초를 따라,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이동하고 순회하게 된다.

[오답해설]

① 유목가마민족이 문명교류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문명사적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② 초원 지대와 사막 지대는 대규모의 관계수리가 요구되므로 자연 농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④ 가축을 사양하면서 수초를 찾아 가재와 함께 주거나 활동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통칭 유목민이라 한다.

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유목은 광역적 이동 목축의 주요 행위이며, 성원 대다수가 주기적 목축 이동에 참여하는 특유한 형태의 식량 생산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5) ①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성어]

분기탱천(憤氣撐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 분기충천(憤氣衝天), 분기등천(憤氣騰天)

[오답해설]

②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 동치서주(東馳西走)

③ 허장성세(虛張聲勢):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④ 온감불원(殷鑑不遠): 거울삼아 경계하여야 할 전례는 가까이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말.

⑤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앓을 태움.

6) ⑤ [어휘 - 관용어]

절에 간 색시: 1.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2. 아무리 싫어도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자발없다: 행동이 가볍고 참용성이 없다.

[오답해설]

① 손(이) 싸다: 일 처리가 빠르다 = 손(이) 빠르다.

② 변죽을 치다: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 = 변죽(을) 울리다

③ 반죽(이) 좋다: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아니하다.

④ 입이 달다: 입맛이 당기어 음식이 맛있다.

7) ⑤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크게 낙심하여 허탈해하거나 멍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무연히'라 적는다.

[오답해설]

①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떠들썩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확자하다'라 적는다.

②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치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명사는 '복새통'이라 적는다. '복새통'은 '복새통'의 북한어이다.

③ '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매우 지저분하고 궁상스럽다', '마음 씩씩이나 하는 것이 매우 좁스럽고 웅졸하다'란 의미의 형용사는 '피뢰피하다'라 적는다. '피뢰피하다'는 '괴뢰피하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말이다.

④ '어쭈거나 부끄러워서 자꾸 머뭇거리거나 주저주저하다'란 의미의 동사는 '주뻗거리다'라 적는다. '주뻗거리다'는 '주뻗대다'와 동의어이며 '주뻗거리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말이다.

8) ①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없다'는 일반적인 형용사의 활용과 다르게 '-으냐'와 결합하지 않고 '-느냐'와 결합하며 '없느냐'와 같이 활용하는 등 동사의 활용형을 띠지만 언제나 형용사이다.

[오답해설]

②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로 쓰인 '크다'는 동사이다. '크는구나'와 같이 활용한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③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의 의미인 '있다'는 명령형이 가능한 것을 보아 동사임을 알 수 있다.

④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란 의미의 '밝다'는 동사이다. '아침이 밝는다'와 같이 활용한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⑤ '늑다'는 언제나 동사로 쓰인다.

9) ④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덩이뿌리, 뿌리줄기, 비늘줄기'는 여러해살이풀의 특징이다. 한해살이풀 중 이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해설]

① 풀은 줄기가 나무질이 아닌 초질로 이루어진 식물로 구분된다.

② 시금치는 종자에서 발아한 풀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서 가을에 꽃과 열매를 맺는 두해살이풀이다.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것이 아니므로 상록 초본으로 볼 수 없다.

③ 땅 아랫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 생존하면서 한살이 동안 몇 차례 이상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해살이풀(온방울꽃, 자리공) 또는 속근초(宿根草)라고 하며,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풀을 상록 초본이라고 한다.

⑤ 야자나무과나 대나무 등은 본질적으로 풀에 속하는데 지상부가 몇 년 이상 살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지만, 비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특수한 풀이라고 할 수 있다.

10) ② [어휘 - 순화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인 '블랙컨슈머'는 '악덕소비자'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소셜미디어와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소셜 커머스'는 '공동 할인

구매'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

③ 치킨게임(chicken game): '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양보 없이 극한까지 몰고 가는 상황'을 이르는 말인 '치킨게임'은 '끝장승부'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

④ 제로베이스(zero base): '무엇인가 해당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 '제로베이스'는 '백지상태, 원점' 등으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

⑤ 와이파이(Wi-Fi):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르는 말인 '와이파이'는 '근거리 무선망'으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

11) ⑤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

'그러한 정도까지, 또는 그렇게까지'라는 의미의 부사인 '그토록'과 '그다지'는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나, '그다지'는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쓰이므로 '그토록'을 사용한 주어진 문장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오답해설]

① ⇨ 철수의 장점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다. '장점'이 주어일 때 서술어에도 역시 '~것이다, ~점이다'와 같은 서술어가 와야 한다.

② ⇨ 선생님은 학생들의 비애/슬픔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노력하였다.

'애환(哀歡)'이란 '슬픔과 기쁨'의 뜻으로, 들어주고 위로하는 목적어가 '비애'나 '슬픔'은 될 수 있을지라도 '기쁨'이 되기는 어렵다.

③ ⇨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시간적 자격을 나타내는 구성이므로 조사 '로서'를 써야 한다.

④ ⇨ 김 씨는 "사람들이 매우 흥분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가 쓰인 직접 인용절에는 인용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12) ③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조사'는 자립성은 없으나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주어진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또/하나/의/기자/가/되어/면/길/을/가요', 총 10 개다.

* -아요: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미 '-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어미이기 때문에 '가요'를 단어 2개로 세어야 한다는 입장이 가능하지만 선지에 11개가 없으므로 이것을 '-아요'를 하나의 어미로만 파악하여 세 것으로 풀도록 한다)

13) ③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지문: 정국인, <상춘곡>

자연의 완상하는 내용 속에서 시간적 비약이 있는 부분은 ㉔이다.

[현대어풀이]

속세(홍진)에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있는 생활을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㉑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㉒ 초간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숲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도다. ㉓ 옛그제 겨울 지나 다시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위에 피어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㉔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㉕ 숲속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라도

14) ② [독해 - 비문학 - 빈칸 추론]

괄호 앞에 위치한 첫 번째 문장은 예술의 사회성이 강조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동시에 그 이유가 특히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예술 자체의 변모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현대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예술의 사회성이 강조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괄호 뒤에 서술된 내용도 예술이 수용자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위 글은 예술의 공적 성격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③ 예술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그러나 괄호 뒤의 서술은 예술 그 자체가 역사적이거나 그 개념이 변천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④ 예술철학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예술사회학에 대해 밝히는 글이 아니다.

15) ① [어휘 - 고유어]

맞문-하다 「형용사」 몹시 지친 상태에 있다.

㉑ 수많은 식물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에 시달려 온 맛문한 가장의 얼굴이랄까.

[오답해설]

②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를 의미하는 말에는 '손방, 문외한, 생무지' 등이 있다.

④ '가르거나 조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 '온새미'는 흔히 '온새미로' 꼴로 쓰여 '가르거나 조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16) ⑤ [독해 - 비문학 - 배열]

ㄱ, ㄴ, ㄷ 중 글의 시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ㄴ이다. '원손잡이의 날'이라는 화제를 제시한 이후에, 원손잡이나 원손잡이의 날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어야 한다. ㄴ 다음으로는 ㄱ, ㄴ 중 ㄴ이 이어져야 한다. ㄴ이 '원손잡이의 날'을 이어 받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원손잡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불편함에 대해 설명하는 ㄱ과 아직도 원손잡이에게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ㄷ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17) ④ [독해 - 비문학 - 접속 부사]

첫째 문장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는 내용이다. ㉑ 다음 문장은 우주시대의 식량 해결에 관심이 커졌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문장이 모두 '먹을거리'를 향한 인류의 노력과 관심을 담고 있으므로 역접의 접속부사가 올 수 없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21세기 식량에 대한 낙관론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많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낙관론은 앞 문장과 인과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㉒에는 '그래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㉓ 뒤의 문장은 앞 문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므로 ㉔에는 '하지만'이 적절하다.

18) ②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쇠다'의 어간 '쇠-'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쇠었다'는 준말 형태인 '쌌다'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된 문장이므로 '쌌다라고'로 적지 않고 '쌌다'로 적는 것 또한 어법상 옳다.

[오답해설]

① '-스럽다'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므로 관형사 '옛'이 아닌 명사 '예' 뒤에 붙어 형용사 '예스럽다'로 파생해야 한다. '예스럽다'는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③ '얼마만큼'이 줄어든 말은 '얼마큼'이다. 이를 '얼만큼'으로 적는 것은 틀린 표기이다.

④ '우레'가 표준어이다. 예전에는 '우뢰(雨雷)'로 쓰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말 '우레'를 한자어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레'를 표준어로 삼고 잘못 써온 '우뢰'는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우레'와 같은 의미인 '천둥'도 표준어이다.

⑤ '이점'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어로 등재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표기한다. 따라서 '이로운 점'을 의미하는 명사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이점(利點)'으로 적는다.

19) ③ [독해 - 비문학 - 빈칸 추론]

마지막 문장에서 ㉔이 매일 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달이 ㉔으로 적절하며, 변하지 않는 별이 ㉑이 된다. 또한 2문단에서 ㉒과 ㉓, ㉔과 ㉕이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문단에서 별빛이 달빛과 달리 사물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으므로 ㉔에는 이성, ㉕에는 감성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20) ⑤ [어휘 - 고전 산문의 어휘]

'육환장(六環杖)'은 승려가 짚는,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를 말한다.

[오답해설]

① 앞의 '기중'은 '其中'으로 '그 가운데, 그 속'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로'는 '무리 중 특히' 어뻤다는 점을 의미한다.

② '상해'는 '항상, 평소'를 의미하는 옛말이다.

㉑ 상해 사름드려 날오되 - <변역소학>

③ '산문(山門)'은 '1) 산의 어귀, 2) '불교' 절 또는 절의 바깥문'을 의미한다.

'절간'은 '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④ '수부(水府)'는 '전설에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을 의미한다. 문맥상 '용궁'으로 해석할 수 있다.